



가느다란 세필로 도시 풍경을 완성해 나가는 우병출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세필로 그린 도시풍경...섬세하다

모든 작품은 사진이나 도록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훨씬 흥미로운데, 서양화가 우병출 작가의 그림은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의 설명을 듣기 전 도록으로 접할 때는 너무도 사실적인 묘사가 얼핏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펜으로 세밀하게 그려낸 드로잉 작품처럼 인식됐다. 또 조금은 차갑고 빈틈이 없어 딱딱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작품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묵화의 기운이 느껴지고, 적절한 마티에르가 어우러져 입체감을 선사한다.

그의 작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 또는 물결이다. 처음에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세밀하게 포착해낸 건물이나, 거리 풍경,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눈길이 가지만 잔잔히 흐르는 물결이나 독특한 터치의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에 오래 눈길을 머뭇다. "색을 절제하는 게 힘들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작품 속에 포인트처럼 감춰져 있는 '색'은 또 다른 흥미로움으로 다가온다.

서양화가 우병출 작가가 서울 인사아트센터 전시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나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대전 목원대 출신으로 서울과 외국 아티페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가 광주에서 여는

우병출 작가 'Seeing' 전
25일까지 나인갤러리
파리·홍콩·서울·부산 등 소재

첫 전시다.

전시작은 모두 'Seeing'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와 정보보다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즐겨 그리는 것은 도시의 풍경이다. 하늘을 찌를듯한 빌딩이 멋진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뉴욕이나, 에펠탑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파리, 홍콩 등이 주 소재였고, 최근에는 서울과 부산 등 국내 풍경들도 다루고 있다. 여행을 떠나 수백킬로미터를 걸으며 자신만의 포인트로 사진을 찍고, 작품에 가장 적합한 시선을 포착해 화폭에 옮긴다.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예술의 거리 등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소재를 모으고 있었다.

우 작가는 "도시마다 선의 느낌이 모두 다르네. 그 다름을 나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며 "선은 반복이며, 반복 속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하늘에서 내려보는 듯한 부감법을 통해 전체를 조망하는 풍광이 많다. 김

은색 주조의 작품 속에 노랑, 빨강 등 원색이 포인트처럼 들어가 작품에 또 다른 이미지를 부여한다. 고층 건물 일색의 풍경 속에 박혀 있는 푸른 숲 등은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데, 화폭에도 휴식과 위안을 전하며 여유로움을 선사한다.

그의 초창기 작업은 자연 풍경을 그리는 데 집중돼 있었다. 이 때에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원경은 근경처럼, 근경은 원경처럼 그려내면서 다른 시선을 포착해 냈다. 이번 전시장에 나온, 자연 풍광을 그린 작품들은 기존 작가들의 풍경화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며 작가의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150호, 200호에 달하는 그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탐과 인고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150호 크기의 작품 한 점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900~1000시간에 달한다. 하루 16시간씩 작업할 이젤 앞에 앉아, 차곡차곡 벽들을 쌓듯이 가는 세필로 선을 그리며 캔버스를 채워가는 그의 작품에선 노동의 공력과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전시장에는 그의 작품과는 결이 다른 자동차 그림이 몇 점 걸려 있다. 자신이 화가라는 걸 알고 '자동차'를 그려달라고 청했던 아이의 제안에 작업한 것으로 그에게는 휴식처럼 다가오는 소재다. 문의 062-232-2328.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임의진 작

길들여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것'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기획전
임의진·유지원 초청 4일부터



유지원 작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임의진 작가와 유지원 작가를 초청해 '날 것, 그대로의 것' 기획전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아래아 갤러리에서 열리며 오후 4시 열리는 오픈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기획전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예술적 속성들에 집중한다. 임의진의 삶은 여행에서의 단순한 방랑객이 아닌 '유목민'의 삶처럼 야생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불모의 땅이 된 곳에 달라붙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창안한다.

유지원은 시간이 지나 버려진 것, 오래돼 기피된 공간 등 그 자체에서 보이는 날 것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대상의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깎아내린다. 그의 작업은 건축 자체 조각들을 재조합해, 언뜻 집처럼 보이는 건

축물을 재구성하지만, 우리가 실제 정의하는 '집'은 아니다.

누가 쓰다 버린 화판들과 나무 판자를 주워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임의진은 자신의 작품을 '삶을 체화하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근사한 미술관에 들어가는 대신, 동네 생활 미술을 추구하고, 예술의 일상화를 역설한다.

전시를 기획한 양초롱 해동문화예술촌 예술감독은 임의진 작가를 직업과 예술적 일상에서 자신의 직업 너머의 야생의 사유를 바탕으로 삶을 구축해 나가는 이로, 유지원 작가를 인간의 야생적 사유의 흔적을 역추적해 가는 이로 설명한다.

한편 어린이예술교육프로그램 '상상나라'는 매주 토요일 계속 진행되며, 7-8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잠시 쉬어간다. 문의 061-383-824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꽃가마타고'

청강창극단 정기공연, 6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



(사)청강창극단(단장 박세연)이 제4회 정기공연 가족극 '꽃가마타고' (사진)를 선보인다. 6일 오후 3~7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

이번 공연은 청강창극단과 청강창극단 곡성지부, 청강판소리교보보존회 장성지부가 함께 주관하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꽃가마타고'는 잊혀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정래문화를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꽃가마타고 가는 길이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임을 이야기한다. 또한 꽃가마타고 가는 길을 비춰주고 안내해주는 우리나라 전통나무인형 꼭두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고 이야기해보고자 기획됐다.

무대는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셋집에서

사용되는 장단인 동살풀이, 여러 전통연희에서 애용되는 국악 장단인 굿거리 등 다채로운 선율로 꾸며진다. 김안순·소지현·박세연·유윤하·김해수·박다희·정수연·함승우 등이 출연하며 음악 및 신디 신태주, 대금 유태선, 아쟁 김정민, 장단 정인성, 무용 김소라·송정원·서지영·이진선 등이 각각 맡았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한다.

한편 지난 2015년 창단한 (사)청강창극단은 국악 임방울 선생의 제자인 청강 정철호 소리꾼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교보이수자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심청가 이수자인 박세연 단장과 제자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현재'를 살아가는 니장-흙을 다루는 장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전통기법 수리 보고서 발간

대목장(大木匠)·석장(石匠) 등과 함께 집을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니장(泥匠)은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 흙과 회, 시멘트 등을 바르는 장인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건축 기술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의 하나로 니장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현재'를 살아가는 니장-흙을 다루는 장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전통기법 적용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전통니장 기술의 계승과 보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전통기법을 지켜가고자 노력하는 장인 11명의 진지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장인들이 사용하는 벽체 구성 재료와 시공기법에 관한 내용 등 장인들의 보유 기법을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주요 기법을 그림, 도면 등으로 표현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단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참여자 모집

인생 전환기에 있는 청년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II '일상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공모를 오는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안녕을 묻고,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일부터 9월 4일(매주 화·목 오후 7시)까지 모두 6회 진행되며 빛고을아트페이스 외 광주일대에서 진행된다.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를 비롯해 제주도 '일상생활가의 집' 대표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최예지 작가,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송재영 작가가 특강 강사로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떠나오, 모두의 랜선여행', '여행드로잉', '여행의 이유', '여행의 기록', '일상여행 프로젝트' 등이다. 참가대상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팀 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62-670-5762. /박성천 기자 skypark@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